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6. 2

주간 달러/원 동향(5/26~5/30)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미국의 대 EU관세 부과를 7.9일까지 유예하기로 하였음에도 셀USA 기조 반영 및 위안화 강세 연동 등으로 1,360원대까지 저점을 낮추며 출발. 이어 시장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재료 부재한 가운데 수급 움직임 속 위안화 약세 전환 영향 반영하며 상승. 중반 들어,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이 글로벌 달러 반등 흐름을 견인함에 따라 환율 상승 추세 지속
- 후반 들어서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상호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하며 제동을 걸에 따라 달러 강세 압력이 강화된 가운데, 한은 금통위 25bp 금리인하 결정 등으로 큰 폭 상승세 이어진 형국. 이어 후반, 전일 연방법원의 상호 관세 제동이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단으로 중지되면서 관세 관련 플랜B 정책 소식에 달러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승 이어지며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통화시장 방향성에 주요 이목을 끌 최대 변수는 재차 수위를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예상
- 그간 미-중간 '휴전' 양상을 보이며 완화되었던 긴장감이 재차 재점화하는 국면 속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품목별 철강 관세 인상 및 이에 따른 EU와의 무역 갈등 격화 우려감 등도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
- 또한 차주 예정된 FOMC에 대한 관망세도 환율 방향성에 영향 미칠 전망 속에 제한적 레인지 움직임 예상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385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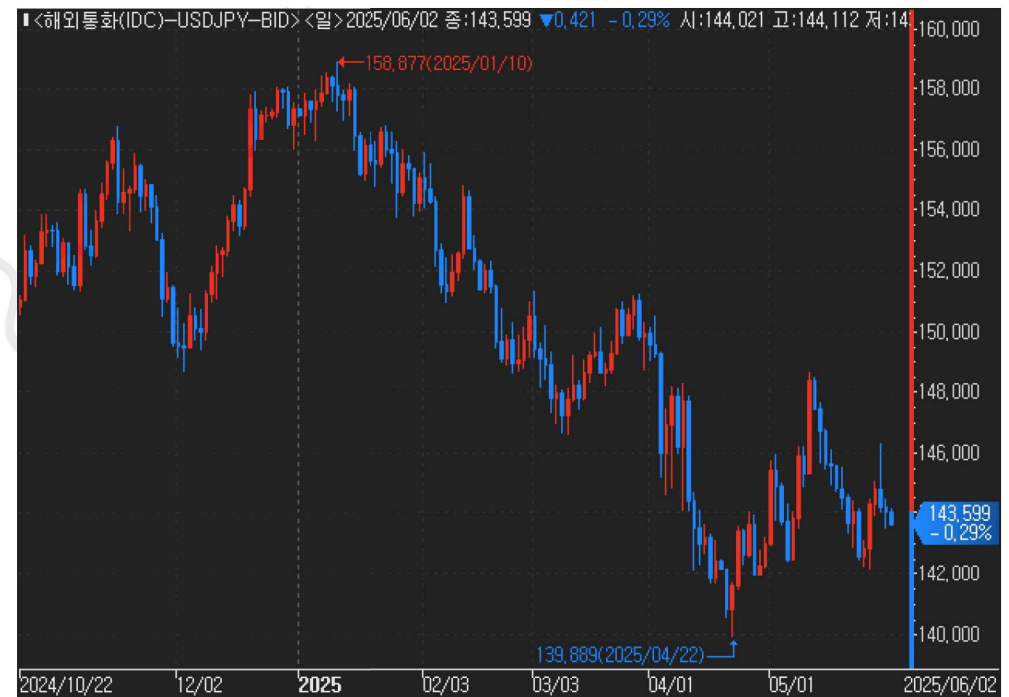
1,369.0 1,385.5 1,360.5 1,377.1 +4.5

유로·엔화 동향 (5/26~5/30)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민간 경기가 위축 흐름으로 선화하였다는 소식 속 미 달러 가치 반등 영향 반영되며 유로 약세 출발. 이어, 달러 인덱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와 미-EU간 무역 협상 낙관론 속 강세 국면 보인 영향 등으로 유로 약세 지속된 형국
- 중반 들어, 시장 관심이 집중된 연준 의사록 내용에 특별함이 없었던 가운데, 미-EU간 낙관적 무역 합의 기대에 달러 강세 지속으로 유로 하락
- 후반 들어, 미국 1분기 성장을 잠정치의 개선에도 전기대비 연율 기준 역성장을 유지했고, 여기에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 증가에 경기 우려 불거지며 달러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EU집행위원장의 미국과의 호의적 관계 개선 의지 발언 등이 유로 강세 견인. 이어 주 후반, 독일 CPI 예비치가 2.1%로 전년동기 대비 0.1%p 하락 한 가운데 ECB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소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달러 가치 약세 견인한 가운데, 또 다른 국가와 미국의 무역협상 지연 소식 등도 달러 가치 약세에 영향을 미치며 엔화 강세 출발했지만, 미 금융시장 휴장을 앞두고 관망 심리 짙어지며 소폭 상승 전환. 이어 boj총재의 일본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금융완화 정도 조절 시사에도 boj 금리인상 횟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장 기대와 일본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엔화 매도 자극으로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 전환한 가운데 결제 수요로 인한 달러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흐름 이어진 형국
- 후반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등으로 엔화 약세 지속 후, 주 후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조치가 복원된 영향 등이 반영되며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361	1.1418	1.121	1.1345
			-0.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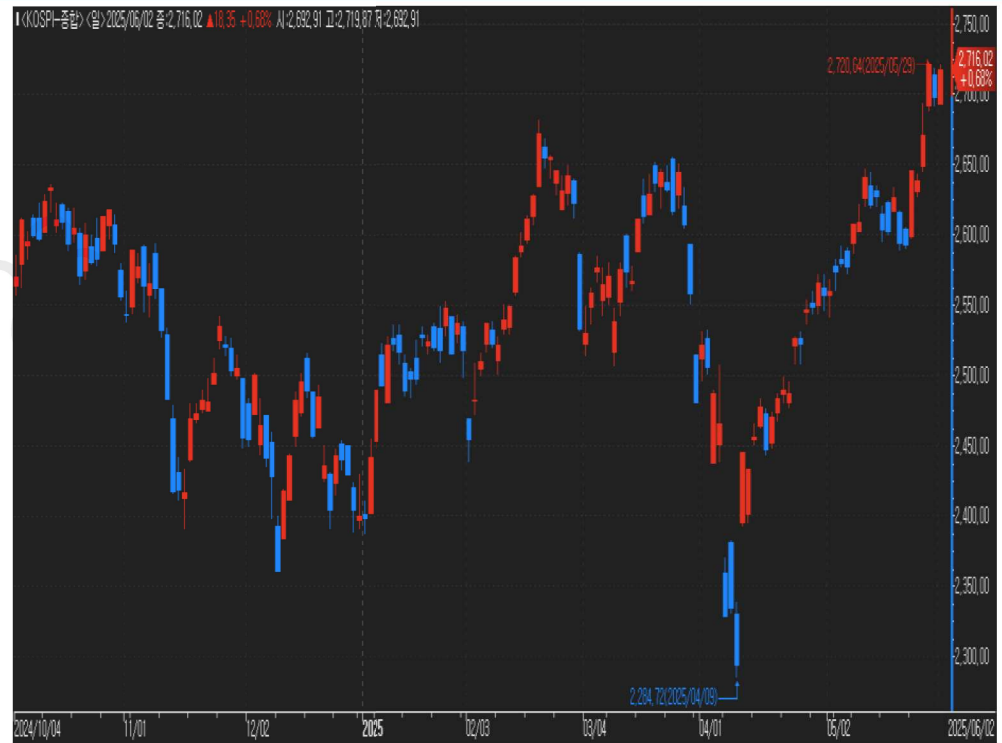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5	146.3	142.1	144.0	+1.4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5/26~5/3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중장기 구간 수급에 긍정적 영향에도 5월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이어 미 국채 금리 상승 우려가 잦아든 가운데 다음달 국고채 장기물 발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소식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중반 들어, 한은 금통위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한 국면
- 후반 들어, 5월 금통위에서 그간의 성장 경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올해 성장 전망을 0.8%로 크게 낮추며 25bp 금리 인하를 단행. 하지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1%대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회견 내용을 소화하며 상승 흐름을 보인 후, 주 후반, 대선 후보의 35조원 이상 추경 편성 발언 등에 따라 국고채 시장 약세 속 금리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주말 사이 불거진 미-EU간 관세 분쟁이 미국의 유예 기조에 따라 투자심리 개선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영향 등으로 2,640선 회복하며 출발. 이어 전일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 업종 등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코스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중반 들어, 뉴욕 증시의 기술주 실적 기대감과 미국 소비심리 지표 개선에 큰 폭 코스피 상승하며 2,700선에 근접
- 후반 들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간밤 뉴욕증시의 엔비디아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공개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강화에 따라 큰 폭 상승 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인 2,720선 회복. 이어 주 후반, 법원 판결로 정지되었던 관세 정책 효력이 되살아남에 따라 투자심리가 재차 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하락 폭 커지며 2,700선 하회 속 마감